

# 교계 복지단체 후원금 소폭 상승

### “SNS홍보, 거리모금, 홈페이지 개편으로 활성화 할 것”

경기불황으로 복지기금 후원이 줄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가운데 교계 기관 및 단체의 후원은 예년만큼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교계복지단체들은 지속적인 후원활성화를 통해 올해에는 후원금과 후원자를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원경)은 “2012년 연말 후원금은 13억여원으로 2011년과 비슷한 수치이고 후원자수도 비슷하다”라며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는데 후원코너에 사진과 내용을 강화하고 후원희망자들이 쉽게 후원할 수 있도록 접근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불자뿐 아니라 일반 후원자 모집을 위해 후원캠페인, 모금활동 사업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도 “2012년 12월 후원금(지정후원금 포함)은 총 6억 3800여 만원으로 2011년 12월 후원금(5억 3900여만원)에 비해 15.61% 증가했다. 후원자수도 2만 7700명에서 3만 8000명으로 1만 천여명이 늘었다. 직원들과 지속적인 거리모금 캠페인 활동으로 경기불황에도 후원을 늘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승가원은 정기적으로 서울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에서 ‘행복나눔 거리캠페인’을 실시, 일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승가원의 사업을 소개하고 장애가족들을 위한 서명운동과 나눔신청을 받았다. 또한 2회 연속 삼일회계법원에서 시상하는 ‘삼일투명경영대상’ 장애인부문에서 상을 받아 신뢰도를 높였다. 승가원은 “거리로 나가 일

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기회원자에는 타종교인들도 많은 편”이라며 “투명경영대상에서 상을 받은 것도 후원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올해에는 법인 사무실 및 승가원장 애아동시설 이전과 관련한 홍보와 후원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고 설명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2년에는 42억여원으로 2011년의 50억 7천만 원보다 적게 모금했다”며 “이는 2011년에 일본 쓰나미, 태국 홍수 등 재난 피해로 인한 구호 성금이 추가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신규 후원자와 지정기탁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 전년도 대비 신규 지정기탁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후원자 모집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간다.

아름다운동행은 “사찰을 통한 홍보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 후원자를 발굴해 CMS 자동이체 동점유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후원금은 약 6.8%, 후원자수는 175.7%로 증가했다. 본부는 “언론을 통해 생명나눔후원 홍보활동을 한 결과 후원금과 후원자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청원)는 2011년 후원건수 5657건에서 2012년 6898건으로 증가했으며, 자원봉사활동건수도 40498건에서 40818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후원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경향이 기금 전달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추세”라며 “활동 건수가 늘었음에도 후원금액은 다소 줄었다”고 덧붙였다.



승가원은 정기적으로 서울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역주변에서 ‘행복나눔 거리캠페인’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승가원의 사업 소개와 장애가족들을 위한 서명운동 및 나눔신청을 받는다.

이같이 교계 복지단체의 후원금지원 및 후원등록이 다소 늘어났지만 보현의 집과 같은 자활인시설 후원은 거의 끊긴 실정이다.

영등포시립 보현의 집(시설장 임도영)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공모 사업 지원금을 받는 후원금이 대부분

이고 개인후원금이나 정기후원은 거의 없다”며 “후원자들은 자활인들이 높고 먹기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기왕이면 어린이 시설, 독거노인에 지원하느라 낯’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현의 집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노숙인보다 자활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 이들이 열심히 자활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후원모금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복지단체들이 후원홍보활동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복지기관의 브랜드가치를 높

이고 공신력을 얻는 것이 후원자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경민 복지여성연구소 대표는 “후원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후원회원이 낸 후원금이 타인을 돕는데 잘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한 종교정신을 바탕으로 몇 백년간 전통과 신뢰를 쌓으며 복지활동을 한 구세군이 대표적인 경우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구세군 자신됨비를 보면 주저하지 않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주저하지 않고 기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후원금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건축이나 교양강좌, 성지순례 등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아나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3만명 돌파

### 생명나눔실천본부 “매년 3000명씩 꾸준히 등록”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모집 3만명을 넘겼다. 매년 대학가, 문화축제, 거리, 군부대, 기업체, 사찰 등지에서 희망등록 캠페인을 벌이며 모집하고 기증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04년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모집을 시작한 이래 매년 약 3000명씩 꾸준히 등록해 2012년 말 기준 누적 3만명을 넘겼다”며 “2012년에는 실적증자도 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조혈모세포를 함유하고 있는 골반뼈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며칠간 엄지 부위가 열릴하다는 점 외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0%에 가깝다”며 “또한 조혈모세포 채취용으로 없어진 골수는 4주 이내에 자연히 원상 복구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기간 HLA형이 일치해야 하는데 부모와는 5%이내, 형제자매 간에는 25% 이내, 타인과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한 권숙(46) 씨.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을 한 권숙(46) 씨는 자신의 세포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2월 20일 인하대병원에서 조혈모세포기증을 했다.

권숙 씨는 “수천에서 수만 명의 작은 확률로 일치하는 환자가 있어 기증을 하게 돼 기쁘다”며 “다른 분들도 기증할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꼭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꾸준히 후원을 해온 권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도 조혈모세포기증과 장기기증희망등록을 권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 의지를 다졌다.

이사장 일면스님은 “희망등록 해주신 분들과 실제로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조혈모세포기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02)723-5101 이아나 기자



2012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 ‘위풍당당 할매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들.

#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 속초시노인복지관, ‘위풍당당 할매들’ 성료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배우자나 가족의 사별로 인한 우울증 예방치료 사업으로 진행한 ‘위풍당당 할매들’을 성료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 회의 2012년 배분사업에 선정돼 ‘위풍당당 할매들’ 프로그램을 2012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 어르신 20명을 모집해 진행했다.

10개월간 복지관은 사별에 대한 슬픔을 빠르고 건강하게 극복하여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 미술치료, 집단상담, 체험활동, 숲 테라피체험, 자원봉사활동, 휴대폰사용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들을 진행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라운미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의 표정이 어둡고 소극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으나, 미술심리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많이 밝아져갔다”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여자들끼리 지속적인 모임행성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속초시노인복지관 관장 묘근 스님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033)636-3373 이아나 기자

# 조계종복지재단, 장애인과 신년맞이 축제



행복공감봉사단과 장애인들은 조별 매칭을 통해 ‘만두빚기’와 ‘만두경연대회’에 참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월 10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행복공감봉사단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신년맞이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

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는 기획재정부 김동연 2차관과 행복공감봉사단 홍보대사 김장훈을 비롯한 행복공감봉사단 단원 50여 명, 그리고

지역 내 시설이용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행복공감봉사단과 장애인들의 조별 매칭을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함께 구입하고 나누는 ‘행복공감 장보기’를 진행했다. 또한 다함께 만두를 빚는 ‘만두빚기’와 ‘만두경연대회’ 및 점심공양을 준비해 장애인식개선과 공감을 위해 적극 참여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월 15일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자원봉사 활동 MOU를 체결했다. 대학기 장학금과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할 학생을 모집해 파견해온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은 계사년 새해를 맞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보다 전문적인 나눔·봉사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아나 기자

# “겨울방학 힐링하러 떠나자”

### 목동청소년수련관, 힐링캠프 실시

학업·진학·진로문제로 힘들고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힐링캠프가 열린다.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1월 25~26일 겨울방학 청소년캠프 ‘자연 힐링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 양평 미리내 캠프에서 진행된다.

캠프일정은 오리엔테이션, 도전! 청소년 웨트(팀별 요리체험),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게임과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신청은 수련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2)2642-1318 이아나 기자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

www.dongsanbud.net

## 2013년 동산불교대학 42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2월 2일(토) 오후 5시 개강]
    - ▶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6시 ▶ 목요일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통신반
      - 1년차 과목 \_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학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교수진 \_ 무진장대중(본대학장),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치석교수, 김성현교수, 박종교수, 주영철교수, 정영신, 종석스님, 보각스님
      - 2년차 과목 \_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반야사상 교수진 \_ 최중석교수, 백도수교수, 김호귀교수, 윤열수교수, 활인스님, 김성현교수, 모주스님, 박종교수, 김형준교수
  - 불교관련학과 - 다도학과 3월 5일 불교미술학과 3월 7일 선·명상학과 3월 7일 개강
  - 불교대학원 - 3월 4일, 5일 개강
  - 불교의식교육원 - 3월 6일, 9일 개강
- 모집인원 (불교학과) | 180명(토요반, 목요일반, 통신반 각 6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개,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불교학과) | 2013년 1월 1일부터~
- 문 의 | 021732-1206~8
- 불교학과 2년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군법당 관련증서(자주명,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대학원**

본대학 사무처 :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732-1207

##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삼보귀의하옵고!  
여래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중단, 청정중단, 열린중단을 지표로 한국불교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중단으로 강원교육과 문화교실을 통하여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필요한 배움의 장을 만들고 신도들을 상대로 법사를 배출하는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여래불교 조계종 중단과 함께 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의 동참을 바랍니다.

### 종정무역

총무원장 현 산 (서울 마장동 여래사)  
총회의장 해 건 (성남시 보통정사)  
사무총장 자 운 (서울 미타사)  
감찰원장 법 성 (전남 나주시 유원사)  
교육원장 중 무 (대구시 남구 기원정사)  
문화원장 보 성 (강원 속초시)  
호계원장 성 보 (경기 문산 승주사)  
포교원장 만 경 (강원 춘천 보통정사)  
선원장 향 지 (성남시 향지선원)  
사회부장 제 오 (충남 금산군 광명사)

### - 입종서류 -

- 승려 및 사찰 등록 신청서 1부
- 반명함 사진 3매
- 주민등록사본 및 등본 1부
- 승적증빙서류(타 중단 수계증 및 도첩 사본) 1부
- 도첩은 본 중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중단 총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중단은 개인재산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음.

### - 교육부설 -

교육구분	대 상
강원 (4년)	비구, 비구니 양성
불교대학 (2년)	일반신도 및 법사 양성
불교대학원 (2년)	전 법사 양성
문화교실 (매주)	서예,사군자,달마도, 불교의식 등

## (사)여래불교 조계종 총무원

### 총무원장 현산

총무원 : 사무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78-14 여래사 전화 : 02)2282-5830 / 010-6710-8300(사무총장)